

피플Q | 돌아온 보아... 그녀에게 음악이란? 영화란?



“스텝 업” 같은 영화라면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마침 그런 영화가 찾아왔다.” 데뷔 10년 만에 할리우드 영화를 통해 연기에 도전하는 보아가 영화 출연을 결심한 첫 번째 이유다. 사진제공 | SM엔터테인먼트

■ 6집 ‘허리케인 비너스’는 어떤 앨범?

동서양 스타 작곡가들 대거 참여 보아의 10년 내공 고스란히 담아

6집 ‘허리케인 비너스’는 우리가 한동안 그녀의 존재를 잊고 있었음을 미안하게 만드는 앨범이다. 보아의 음악적 재능이 집약된 앨범이고, 다른 여가수와 확연히 차별되는, 보아 아니면 하기 힘든 음악이 담겨 있다. 일본과 미국에서 고군분투하며 쌓은 국제적 감각을 십분 발휘한 것은 물론 데뷔

10년간 쌓아온 내공이 오롯이 담겼다.

11개 트랙으로 구성된 음반에는 초반에 ‘게임’ ‘허리케인 비너스’ ‘데인저러스’ 등 신스팝 넘버들이 잇달아 수록돼 있다. 이로 인해 앨범 전반적으로 팝 성향이 두드러지지만 여러 면에서 균형 잡힌 앨범이다. 댄스음악과 발라드 음악(미디엄 템포 포함)이 반반이고, 작곡가의 비율도 외국 작곡가와 국내 작곡가가 비슷하다. 댄스음악은 국의, 발라드는 국내 작곡가들이 담당했다.

11개 트랙 댄스·발라드 절반씩 뮤직뱅크 첫무대 강렬함 그자제

보아가 이번엔 손을 잡은 작곡가와 연주자들의 면면을 보면 그녀가 이번 앨범에 얼마나 다양한 장르를 담으려고 했는지 알 수 있다. 브라운아이즈걸스의 ‘아브라 카다브라’로 단번에 아이돌 음악의 대부로 떠오른 롤러코스터 출신의 지누(‘게임’)를 비롯해 김동률(‘열사람’), 김종완(‘한별’), 재즈 피아니스트 송영주(‘로맨스’) 등은 보아 앨범에 참여해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었다.

보아가 음악을 대하는 태도도 한결 여유로워졌다. 고음으로 청자들을 유혹하던 식으로 가창력을 뽐내려하지 않았다. 창법은 여유가 있고, 간결하고 담백한 감성이 있다. 가성과 애드립, 코러스에서 그녀의 가창력을 새롭게 느낄 수 있다.

6일 KBS 2TV ‘뮤직뱅크’로 방송활동을 시작한 보아의 무대는 ‘강렬함’이 키워드다. 탈색된 머리와 짙은 눈화장, 불릴빌링한 검은색 의상을 입고 ‘허리케인 비너스’ 속의 강렬한 사랑을 춤으로 표현했다. 김원경 기자 gyummy@donga.com 편집 | 김현우 기자 pudgla@donga.com



“美 활동 ing!...영화 위해 한박자 stop”

(할리우드 데뷔작 맨스영화)

머서 언어·노래·춤 세가지 언어 발라드 능숙...국내 활동에 최선 다시 빌보드에 이름 올릴날 올것

김원경 기자 gyummy@donga.com

보아에게 5년 만에 국내 가요계로 돌아온 소감을 묻자 “부담과 기대가 공존한다”고 했다. “그동안 좋은 가수들이 많이 데뷔해 나도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에서는 부담보다는 기대가 더 컸다.

그녀의 국내 무대 컴백을 두고 가장 많이 제기된 궁금증은 미국 활동 여부다. 보아는 미국에서 빌보드 127위까지 올랐다. 사람에게 따라서는 기대에 못미치는 성과라고 여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 컴백으로 미국 도전은 끝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있다. 보아는 “미국 시장 도전은 한국 활동과 할리우드 영화로 잠시 중단된

상태”이라며 결코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 5년 만의 컴백소감은. “단순히 음반의 트랙수를 채우는 게 아니라, 10주년의 의미가 있고, 또 5년 만에 컴백이기 때문에 나에게 기념적인 앨범이어서 좋은 곡만을 담았다.”

- 가요계가 변했다는 걸 느끼나. “좋은 후배도 많이 나오고 가요계도 많이 발전했기에 좋은 퍼포먼스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지만 방송 무대가 낯설기도 하다. 최근 음악방송을 많이 봤는데, 사전 녹화 수준이 웬만한 뮤직비디오 같아 굉장히 놀랐다. 나도 안무에 더 신경 쓰게 되더라. 외국에서 활동하며 꾸준히 무대 감각을 지켜왔다.”

- 국내 활동을 하지 않던 5년간 보아의 달라진 점이 있다면. “미국에서 작업하면서 퍼포먼스, 음악적 스케일이 많이 향상된 것 같다. 유명 아티스트와 작업하면서 음악공부도 많이 했고, 음반에 자작곡도 담을 수 있었다. 나이가 들어가는 만큼 음악적 폭도 더 넓어져, 이번 음반에 슬픈 발라드와 재즈, 팝 발라드, 댄스 등 다양하게 수록할 수 있었다. ‘나도 이제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미국에서 작업하면서 퍼포먼스, 음악적 스케일이 많이 향상된 것 같다. 유명 아티스트와 작업하면서 음악공부도 많이 했고, 음반에 자작곡도 담을 수 있었다. 나이가 들어가는 만큼 음악적 폭도 더 넓어져, 이번 음반에 슬픈 발라드와 재즈, 팝 발라드, 댄스 등 다양하게 수록할 수 있었다. ‘나도 이제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 여자 솔로가수의 선두주자로서 부담도 클 텐데. “아이비, 손담비 다 실력이 좋다. 다 색깔이 있기에 누가 더 잘하고, 좋다고 말하는 게 어렵다. 나는 내가 잘하는 걸 하고 싶다.”

- 피아니스트인 큰오빠와의 작업이 화제다. “사실 녹음은 같이 못했다. 그래서 실감이 안 났는데, 앨범 크레딧에 올라온 오빠 이름을 보고서야 실감이 났다. 피아노

연주를 넣고 싶어 여러 분들을 알아보다가, 내가 제안했다. 스태프들도 좋아해서 녹음하게 됐다.”

- 미국 활동은 계속 추진되나. “미국에 프로듀서가 있고, 일본에서도 돌아오라고 한다. 실제로 작업도 진행중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10주년 앨범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다보니 미국이 좀 미뤄진 상태다.”

- 아시아 가수로 미국시장 도전 어렵지 않나. “미국에서 더 좋은 결과가 있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앨범을 내고 활동을 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얻었다. 연어도 그렇고, 음악과 춤 많은 면에서 실력이 향상됐다. 이번 할리우드 영화 출연도 내가 아시아에만 있었다면 제안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도 좋은 제안을 많이 받고 있다. 시간과 조건이 맞으면 언제든 다시 도전할 수 있다.”

“댄스 영화라 끝렸죠...제가 한 춤 하잖아요 ㅋㅋ”

■ 10년만에 연기 도전 왜?

보아는 할리우드 영화를 통해 연예계 데뷔 10년 만에 연기자로 데뷔한다.

2006년 개봉작 ‘스텝 업’의 원안과 각본을 쓴 두안 에틀러가 각본, 감독을 맡을 댄스영화에 주인공으로 캐스팅돼 내년 초 촬영을 시작한다. 제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영화가 예정대로 크랭크인되면, 보아의 연기자 변신은 2003년 첫 연기 변신을 시도한 이후 8년 만이다. 당시 보아는 2003년 홍콩영화 ‘블랙호크’에서 일본 대

연기부담 덜 할것 같아 OK 상대역엔 크리스토펬스 원해

부호의 딸이자 가수로 캐스팅됐다. 촬영이 늦어지면서 출연을 포기했다. 이후에도 한국 드라마 ‘궁’과 대만영화 ‘슬램덩크’, 몇 편의 할리우드 영화 등 출연 기회가 있었지만 보아는 모두 출연을 고사했다.

“사실 그동안 출연 기회가 많았다. 하지만 내가 가수라는 것에 자부심이 있는데, ‘연기자로 전업하는 많은 가수 중 한 명’이란 소리를 슬직히 듣기 싫었다. 또

가수 커리어에도 흠이 되지 않을까 우려도 했었다.”

보아가 이번 영화에 출연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두안 에틀러의 ‘스텝 업’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이다. 보아는 “‘스텝 업’을 통해 춤에 대해 많은 것을 얻었다. 나도 ‘스텝 업’ 같은 영화에 나오면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마침 그런 영화가 나를 찾아왔다”고 했다.

“올 초 시나리오를 받았는데, 춤으로 2시간짜리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좋았다. 단순한 멜로 영화라면 모르겠지만, 댄스 영화라 마음에 끌렸다. 연기에 대한

부담도 좀 덜하고.”

보아의 첫 영화는 미국 뉴욕을 배경으로 춤을 사랑하는 청춘남녀가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남녀주인공의 로맨스도 그려질 예정이어서 보아의 멜로 연기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연기 연습은 많이 했지만, 연습과 실전은 다르니까 부담이 많이 된다.”

보아의 상대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희망하는 상대역을 묻자 보아는 주저없이 “헤이든 크리스토펬스”이라고 답했다. ‘점퍼’, ‘어웨이크’, ‘팍토리 걸’에서 그를 보고 호감이 생겼다고 했다.

“잘 생겼다. 특히 ‘점퍼’에서 그는 임팩트가 강했다. 그런데 그가 춤을 잘 추는지는 모르겠다.”

김원경 기자 gyummy@donga.com

Advertisement for Kyobo Life Insurance. Text: '국내 최초, 100세까지 연금지급 + 꼭 필요한 노후간병자금도'. Includes phone number 080-399-0099 and Kyobo logo.

Health and fitness advertisement. Title: '최경아의 6색 건강요가'. Content: '90도 허리 숙여 흔들흔들 매일 3분 오십견 예방 OK'. Includes illustrations of a woman performing yoga stretches and a list of 6 exercises.

MBC해설위원 | 국민생활체육회 자문위원 저서: 결코 어렵지 않은 내 몸 투자 100일 요가 최경아